

수복지구 포천시 이동면의 사회·문화 전개 양상

김준기*

－ 차례 －

1. 머리말
2. 광복 이전의 이동면
 - 2.1. 조선시대의 이동면
 - 2.2. 일제강점기의 이동면
3. 6·25동란 전후의 이동면
 - 3.1. 북한 치하에서의 이동면
 - 3.2. 수복 이후 재건되는 이동면의 마을
4. 군주둔지 이동면의 사회·문화
 - 4.1. 군부대의 주둔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
 - 4.2. 산판, 숯가마, 땀감과 화전민의 삶
 - 4.3. 이동면의 특산물 막걸리와 갈비
 - 4.4. 이동면 아이들의 전성시대
5. 관광문화마을로 변모하는 이동면
 - 5.1. 유원지가 된 백운계곡과 약사계곡
 - 5.2. 지역 축제로 활성화를 모색하는 이동면
6. 마무리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 강사. junki081@naver.com

[국문초록]

38선 이북 지역인 포천시 이동면은 광복이 되자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 6·25동란 중에는 격전지가 되어 마을들이 황폐화되었고, 주민들은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휴전 후 수복지구로서 마을이 재건되지만 군부대 주변으로 전국각처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면서 팔도의 문화가 뒤섞이게 되었다. 1980년대에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자 이동면의 마을 들에는 식당, 모텔, 캠핑장, 글램핑장들이 들어서며 유원지 마을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동면의 사회와 문화는 전통적 모습이 사라지고 팔도의 문화가 혼합되는 정체불명의 양상이 나타난다.

현재 이동면의 모습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표면적으로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촌사회인 듯 보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회적, 문화적 혼란상이 마을의 외양과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이동면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이를 통해 야기되었던 사회·문화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이동면은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며 다양한 지역 축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었던 이동면 세거성씨들의 전통 문화와 토박이 어른들이 겪은 북한 치하의 경험, 그리고 수복 후 팔도 시람들이 모여들어 생성한 다양한 문화들도 이동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자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포천시 이동면, 북한 군정, 수복지구, 군주둔지 문화, 유원지 문화

1. 머리말

포천시 이동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38선 이북에 속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동면은 광복이 되어 38선이 생기자 북한 치하에 들어갔고, 6·25동란 중 실지를 회복하며 수복지구가 되었다. 이 와중에 이동면의 마을들은 황폐화되었고, 주민들은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전쟁 중 공동화(空洞化)되었던 마을에 주민들이 들어오며 마을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의 일이었다. 현재 이동면의 모습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표면적으로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촌사회인 듯 보이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회적, 문화적 변동 사항이 마을의 외양과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적지 않게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그간 포천 이동면 지역을 현장 조사하면서 포착할 수 있었던 광복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이를 통해 야기되었던 사회·문화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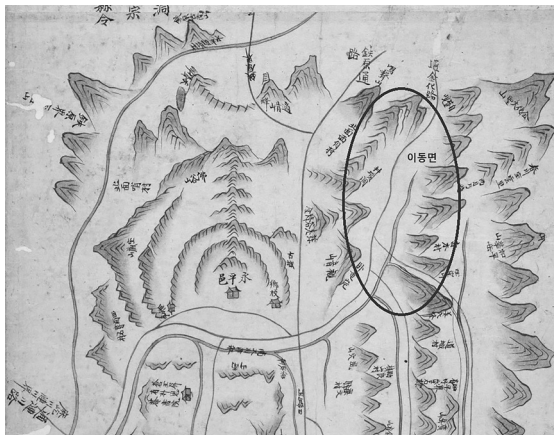
수복 후 근 70년의 성상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수복지구는 여전히 군사보호지역일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 개발은 제한되고, 주민들 역시 수많은 제약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이동면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지역인데, 이동면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마을, 축제마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동면의 사회·문화를 다루는 이 글이 이동면의 문화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광복 이전의 이동면

2.1. 조선시대의 이동면

포천의 동북부에 위치한 이동면은 조선시대 영평현(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이동면은 전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다. 남북으로는 한북정맥(광덕산, 백운산, 국망봉 등)에, 동서로는 명성지맥(각흘산, 명성산, 사향산, 관음산 등)에 속하는 산들이 도처에 솟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동면에 해당하는 영평현의 백운산 일대는 왕실의 강무장으로 봄, 가을 두 차례 기간을 정하여 두고 사냥과 궁술과 야영을 동반한 행사가 거행되었고², 국가에서 사용할 목재가 생산되는 곳으로 산지기의 관리 하에 채벌이 금지된 곳이었다.³ 『성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평현의 호수가 당시 300호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한적한 고장이었다.⁴ 따라서 조선 전기까지 이동면은 물론 영평현 전역이 인구가 거의 없는 산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 영평현 『해동지도』

2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 2월 29일 계유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3월 29일 신묘 /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1479) 10월 12일 갑오

3 『세종실록』 25권, 6년(1424) 9월 10일 임오.

4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1488) 1월 5일 경자

그러다 조선 중기 이후 이동면은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는 이곳에 사패지(賜牌地)를 하사받거나, 임란·병란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하며 도처에 집성촌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동면은 조선 후기에 세거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향촌사회가 형성된다. 노곡리 낭유마을의 충주최씨, 장암리 배선마을의 거창신씨, 연곡리 제비울마을의 안산김씨, 도평리 도리돌마을의 양성이씨 등이 대표적인 세거성씨이다.⁵

※ 이동면의 주요 세거성씨 현황

| 입향시기 | 법정리 | 자연마을 | 세거성씨 | 비고 |
|------|-----|------|------|---|
| 세종 때 | 노곡리 | 낭유리 | 충주최씨 | 입향조는 최하손 현재 10 가구 정도, 17대~18대손이 거주 노곡2리에 재실인 추원재와 선산이 있음 |
| 중종 때 | 장암리 | 배선동 | 거창신씨 | 군부대의 주둔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후손 들도 외지로 이주함 |
| 임진왜란 | 도평리 | 도리돌 | 양성이씨 | 입향조는 이시현 현재 20가구 정도가 남아 있음 재실은 없고, 음력 10월 3일에 시제만 지냄 |
| 병자호란 | 연곡리 | 제비울 | 안산김씨 | 입향조는 김성대 6·25 직전 이동면에 100호, 연곡리에 80호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 연곡4리에 사당 동음사가 있고, 도평4 리 구정마을에 선산이 있음 |

따라서 조선 후기의 이동면은 양반 지주인 세거성씨와 소작농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향촌사회의 문화와 함께 산간지역에서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던 서민층들의 산촌 민속이 공존하였다고 추정된다. 현재 이동면의 각 세거 문중에서 거행하고 있는 제사나 시향, 농경사회에서 거행되던 세시풍속, 그리고 부녀자들에게서 대대로 전승되어오던 가정신앙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풍속임이 분명하다. 도평리의 안약사나 백운계곡마을에는 심마니와 약초꾼이 살았

5 정조 때의 문헌인 『호구총수』에 의하면 당시 이동면은 낭유리, 노곡리, 연곡리, 도포리, 이성리, 응암리, 도평리, 적목리의 8개 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호는 225호, 인구는 822명이었다.

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녔던 산촌 민속 또한 전통사회에서부터 유지되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 영평현에 매사냥꾼에 대한 기록이 보이므로 사냥을 하며 살던 사람들도 거주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자취는 남아 있지 않다.

2.2. 일제강점기의 이동면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시행되며 영평군은 포천군에 흡수된다. 이때 이동면도 장암리, 노곡리, 연곡리, 도평리의 4개 리로 재편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 4개의 법정리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정리 내에 있는 자연마을들 간에도 다소의 이질감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질적인 마을간의 관계는 행정리를 20개로 분리할 때 반영되기도 하였다.

- 장암리 : 마당바위(장암1,4,5리), 매바위(장암2리), 덕재(장암3리)
- 노곡리 : 낭유리(노곡2리), 샘배미(노곡3리), 갈골(노곡1,5리), 응암(노곡4리)
- 연곡리 : 심재(연곡1리), 원평(연곡2리), 만가대(연곡3리), 제비울(연곡4리), 조안동(연곡5리)
- 도평리 : 도리돌(도평1,4리), 백운동(도평2리), 약사(도평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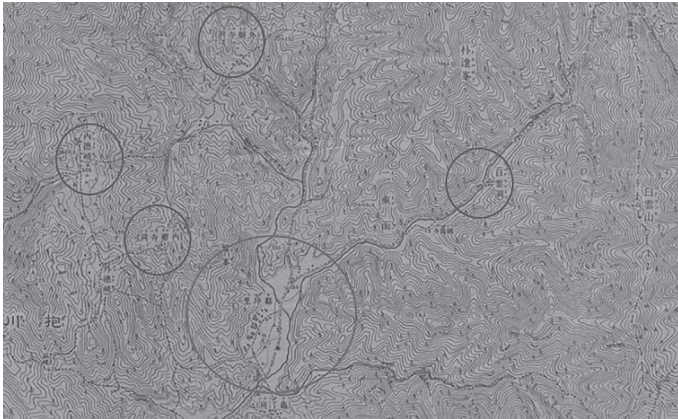
현재 이동면의 토박이 어른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이동소학교(이동국민학교)를 1~3학년까지 다닌 분들이 생존해 계시지만,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는 분은 없다. 다만 현재의 도평1,4리에 해당하는 도리돌마을처럼 조선시대 세거성씨들에 의해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들은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오던 양반 지주와 서민 소작농으로 구성되는 향촌 문화가 별 변화 없이 이어져 왔던 듯하다.

아래의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큰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도리돌마을인데, 도

평천과 백운천이 합수하는 하천 유역에 양성이씨들이 세거하던 마을이 펼쳐져 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경지도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박이 어른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 장작불을 때면서 이 밥을 먹는 곳은 도리들 마을밖에 없었다.’고 한다.

반면 작은 원으로 표시된 덕재(현재 장암3리), 약사(현재 도평3리), 백운동(현재 도평2리)과 같은 지역은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게 외딴 산간에 인가가 몇 채 들어서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천수답인 다락논과 화전(火田)을 일구고 산채와 약초를 캐서 생활하는 빈농층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들 지역은 수복 이후에도 1970년대 이전까지 화전농과 약초꾼들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어져 왔고, 이에 따른 산촌의 생활 민속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도평리는 부유한 지주와 빈한한 소작농, 화전민, 약초꾼으로 대별되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던 곳이고, 이러한 양상은 이동면 전 지역에도 해당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도평리 일대. 큰 원이 양성이씨가 자리잡고 있는 도평1,4리 지역이고, 작은 원이 화전민이나 약초꾼들이 주로 거주하던 도평2리와 도평3리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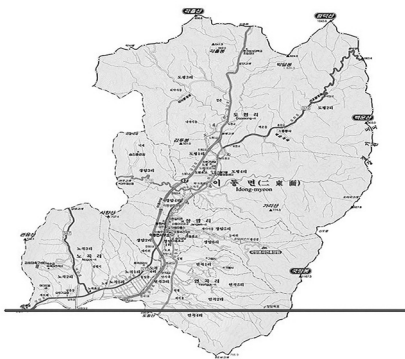
3. 6·25동란 전후의 이동면

3.1. 북한 치하에서의 이동면

광복 이후 38선이 그어지며 포천 북부인 옛 영평군 지역의 대부분이 북한 치하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8선 부근에 있던 면 경계의 조정이 있었는데, 북측은 관할 지역을 영평군으로 개칭하여 관리하다가 1년 후에는 철원군에 편입시켰다.

이동면은 당시 연곡리 제비울마을의 일부만 38선 남쪽에 속했고 나머지는 모두 38선 북쪽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제비울마을은 마을이 반토막이 나며 남·북으로 갈라졌다. 지금 연곡4리 버스정류장 옆에 서 있는 대추나무가 38선이 지나갔던 자리로 당시 이 나무에 38선을 알리는 풋말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38선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한동안은 철책도 없는 가상의 분단선이라서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마을 내에서는 주민들이 별 지장 없이 왕래를 할 수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몰래 영평천을 건너 남쪽 지역이었던 일동장을 보고 오기도 하였다.⁶



이동면 연곡리를 지나던 38선



38선 풋말이 있었던 제비울의 대추나무

6 김영진(남, 84세, 연곡1리) 조사일 2021. 9. 10.

그러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분단선이 재조정되며 제비울마을의 인가들은 모두 북한 치하로 편입되었고, 경비가 강화되어 남측과 북측이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도둔산에는 남측 국방경비대, 주라위산에는 북측 38경비대의 초소가 생겼고, 근무를 서는 양측 병사들 사이에서 육설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서로 총질을 해대는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그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월남을 강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중에는 당시 공산당이 아닌 민주당에 가입하여 요주의 인물이 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몰래 남쪽에 갔다왔다 들키면 영창 신세를 져야 했다. 이원식 어른의 할머니는 포천 소흘면 이가팔리에 있는 친정집에 다녀왔다가 뒷집에 살던 좌익분자의 고발로 한 달 열흘 동안 영창 생활을 했다. 영창에서는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밥을 해다 주어야 했고, 가져간 사람이 먼저 떠먹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음식을 들여보냈다.⁷ 장암리는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북한 치하에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당시 영창은 현 초원갈비 자리에, 경찰서적인 내무서원은 백조사 자리에, 김미자갈비집 자리에는 소비조합이 있었는데,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또한 매바위산에는 대남방송을 위해 스피커를 매달아 놓았었다.

이동면의 토박이 어른들은 당시 인민학교 생활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소년단에 들어가야 했고, 좀더 자라면 민청단에 소속되었다. 소년단은 백운계곡 등지에서 합숙하며 비상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6·25동란이 발발하기 직전 이동면에는 인민군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었고, ‘남한 인민들을 해방시킬 날이 가까워졌다.’는 등의 호소문이 도처에 붙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⁸ 이즈음 북한군은 38선 부근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처음에는 38선에 접해 있는 제비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 원평마을과 만가대 주민들도 포함되었다. 트럭을 세워놓고 인민군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주민들을 끌어내서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트럭

7 이원식(남, 80세, 장암4리) 조사일 2021. 3. 5.

8 이영창(남, 83세, 도평1리) 조사일 2021. 4. 22.

에서 내려놓은 곳은 철원이었는데, 이곳에서 또 어디론가 이주를 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아오지 탄광이라는 소문이 돌며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다수의 주민들은 철원 인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북한정권은 대부분의 민속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타파하려 하였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다수의 민속이 사라져갔다. 세시풍속이나 가신신앙은 물론이고 마을공동조직인 두레도 폐지되었다. 대신 ‘공동출력’이라는 집단노동을 시행하였고, 인민군이 동원되어 통제하고 감독하였다. 일과 놀이를 병행하였던 두레와 비교하면 노동의 요소만 남고 놀이의 요소가 제거된 셈이었다.

아이들의 놀이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아이들에게 한가하게 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민학교는 장암리에 있었고 이동면의 전 지역 학생들이 걸어서 다녔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모여 행진을 해야 했다. 또한 매일 공회당에서 조기회를 열었고, 1주일에 한 번 있는 소년단 회의에서는 자아비판과 타아비판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3.2. 수복 이후 재건되는 이동면의 마을



도리돌마을의 수복기념비

6·25동란 중 이동면을 비롯한 포천 북부의 실지는 모두 회복된다. 이들 지역은 전쟁 중에는 유엔군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1954년 11월 행정권을 이양받으며 귀농인들을 받기 시작했다. 연천, 철원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 귀농선이 설정되며 농사는 가능하지만 주거는 불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이 건설된다.

처음 마을이 조성될 때 입주했던 주

민들은 6·25동란 중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리운 고향을 찾아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마을 자리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었다.

귀향민들은 각 마을별로 설치된 대형 군용천막에 모여 임시로 생활을 하다가 5군단장 최영희 장군의 지시로 군인들이 동원되어 지어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연곡리의 경우에는 주택 15채를 분양받아 1채 당 두 가구씩 나누어 살았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30채로 늘어났지만 속속들이 들어오는 귀향민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뒤늦게 들어온 이웃을 위해 주민들이 울력으로 집을 지었고, 1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⁹

도평리 도리돌마을에는 이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복기념탑이 있다. 6·25동란 중 실지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인데, 1954년에 거행된 제막식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였다.

이즈음 정부는 38선 이북의 포천군 지역과 철원, 김화에서 실지를 회복한 지역을 묶어 북포천군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안에서는 위치상 이동면 도평리가 북포천군의 중심 지역이 되었으므로 군청소재지로 선정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때 군청, 경찰서, 재판소, 이동초, 이동중 등의 건물이 지어졌지만, 신철원을 중심으로 철원군이 생기면서, 북포천군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포천북부 지역은 포천군으로 복귀된다. 일제강점기 초기와 1974년 지도를 비교해보면 도리돌마을이 북포천군의 도청소재지로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원식(남, 80세, 장암4리) 조사일 2021. 3. 5.



일제강점기 초기 도평리지도



1974년 도평리 지도

되찾은 고향마을은 군민합동을 통하여 재건되기 시작했다. 재건을 위한 노력은 마을의 외양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도 포함되었다. 마을마다 산제사가 복원되었고, 두레의 후신인 농산제도 조직되어 공동작업도 하고, 풍물을 치며 대동놀이도 하였다.

당시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산신제가 복원되었는데, 현재도 다수의 마을에서 존속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산신제는 도평2리의 백운산 산신제이다. 백운산 산신제는 매년 봄(3.3.), 가을(9.9.)로 지낸다. 원래의 산제터는 지당골(제당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당시 마을이 재건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식당 지당골 자리이고, 산제를 지내던 참나무도 그대로 남아 있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행해졌다. 향을 피워 신을 모시고 제관과 축관이 재배한 후 잔을 올렸다. 그후 희망자에 한해 잔을 올리며, 제물을 조금씩 떼서 주변에 묻고 참가자가 음복한 후 마쳤다. 제비는 마을기금과 헌금으로 충당하였다.

박호규 어른은 7~8세까지 지당골에 살아서 당시의 산신제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제물로는 통돼지를 잡아서 무, 시래기를 넣어 끓였고, 새벽부터 서낭당과 제당을 돌며 제를 지내면 근처에서 냄비, 그릇 등을 들고 줄서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음식을 얻어갔다. 치성대를 낸 사람의 명단 가지고 다니며

짜리고챙이에 썬 돼지고기를 배달을 하기도 하였다.¹⁰ 현재의 산제터는 흥룡사 건너편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1980년대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며 계곡 주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산제사의 주체가 상인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백운산신제터



도평3리에 남아 있는 곳집

산제사 말고도 성주, 터주 등 가신을 모시는 집도 늘어나 10월 상달에는 햇곡식으로 시루에 떡을 찌서 안택고사를 지낸 다음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고, 동지에는 팔죽을 썬서 집안 도처에 뿌렸다.

두레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농산계라는 조직도 결성되어 기계화 농업이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농산계에는 농악대도 있었다. 농악대는 농기를 앞세우고 정초에 지신밟기를 하고, 농번기에는 공동노동을 하였으며, 백중 때는 백중놀이도 하였다.

상조회가 조직되어 장례를 치러주고 받는 비용을 마을기금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도평1,2,4리의 경우에는 회원이 30여 명이었고, 상여를 매는 인원은 8~10명이었다. 요령을 흔들며 상여소리와 달구질 소리도 하는데, 마지막 선소리꾼은 백운마을의 송영현 어른이었다.¹¹

10 박호규(남, 73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3. 11.

11 송영현(남, 75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4. 1.

4. 군주둔지 이동면의 사회·문화

4.1. 군부대의 주둔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

수복 직후 재건된 마을에는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38선 인근 지역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외지인은 거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토박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마을이 안정되는 1960년을 전후하여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당시 먹고 사는 데 가장 유리한 곳은 군부대 지역이었다. 군무원으로 종사할 수도 있었고, 군납을 하는 된장공장, 두부공장에 취업할 수도 있었으며,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할 수도 있었다.

현재 이동면에서 규모가 큰 마을이 들어선 곳은 모두 군부대 주변이라고 보면 되는데, 타향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이동면은 ‘팔도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특히 호남과 영남 사람들이 많아서 전체 주민수의 1/3에 달했다. 지금도 장암리에는 호남향우회와 영남향우회가 존재한다.

도평리만 하여도 화학대, 특공대, 병기중대, 방첩대 등의 군부대가 도처에 있었고, 군부대에 식량을 보급하는 1종 창고, 연료를 보급하는 3종 창고도 있었다. 도평삼거리에는 1960년대 미군사고문단(KMG)이라는 미군부대가 있었다. 이에 도평삼거리 주변에만 30여 호가 들어서서 별도의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위락시설 및 유흥가가 즐비했다. 백인과 흑인이 이용하는 댄스홀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이동면에 주둔했던 군부대는 변화가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21사단, 다음에 5사단, 3사단 등이 주둔하였고, 8사단 사령부도 있었다. 현재는 5군단 본부가 있지만 지휘부일 뿐 병력이 예전과 같이 많지는 않다. 이중 주민들이 기억하는 이동면의 전성시기는 1970~1980년대 5사단과 8사단이 주둔했을 때이다.

이동면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인가족이 대거 유입되었다. 윤경자 도평4리 부녀회장은 8사단에 근무하였던 남편을 따라 1977년에 이주하였다. 당시에는 도평1,4리에만 군인가족이 30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방 1칸에 부엌 1칸 있는 집들이 하천변을 따라 연이어 지어져 있어서 그곳에 세를 들어 입주하였다. 당시 월세는 나무 때는 집이 3000원, 연탄 때는 집이 4000원이었다.¹²

대부분의 군인가족들은 군인가족들끼리 어울렸고, 이러한 경향은 군인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군인가족들을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라고 인식하여 거리를 두었으며, 아이들은 학교선생님이 군인자녀들에게만 잘해준다고 오해하여 따돌림을 시켰다. 그러나 군인가족과 주민들의 관계는 갈등보다는 공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반 주민들이 생산자라면 군인가족들은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동면은 군인과 군인가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장이었다.

4.2. 산판, 솥가마, 땀감과 화전민의 삶

산지 투성이인 이동면에서는 군인들이 경계를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벌목을 권장하였으므로 산판이 도처에 생겼다. 산판에서는 목재로 쓰기 위해 벌목하는 일 외에 솥을 굽거나 땀감을 모아 파는 등 부수적인 일감들도 많았다.

산판은 목상이 산주인과 협의하여 1정보(3000평) 단위로 계약을 하고, 허가를 내어서 운영했다. 산판의 작업은 농사일이 끝나는 9월에서 겨울 동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벌목하는 나무들은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갈라진다. 가장 상품은 목재로 사용되며 6자와 12자 정도의 길이로 자른다. 나무의 운반은 산계곡에 골판을 내고, 탈피라 하여 나무꺼풀을 벗겨 끌기 좋게 만든 후 끌고리를 박아 줄을 맨 다음 끌고 내려온다. 산자락에 이르면 목도질로 나무를 운반하는데, 대목은 12명, 소목은 4~6명의 목도꾼이 필요했다.

12 윤경자(여, 65세, 도평4리 부녀회장) 조사일 2021. 9. 17.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잣목)와 목재로 가공하고 남은 잔가지는 장작으로 쪼개서 땀감으로 팔았다. 쪼갠 나무조각을 3자 길이로 자른 것을 가치라고 하는데, 12~13가치를 묶어 한 단으로 만든다. 장작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0단 정도를 지계에 메고 내려와서 지에무시(GMC)에 신고 서울 판매장에 넘기면 거기서 소매상들이 사간다.

산판에서는 숯가마를 만들어 숯을 굽기도 했다. 숯감으로 쓰는 나무는 참나무, 박달나무 등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 숯은 이들 나무를 2치~3치로 잘라 사용한다. 검탄과 백탄을 만드는 숯가마는 구조가 달랐는데, 백탄이 고급품이었다. 숯은 역새로 만든 섬에 넣어 팔았고, 숯섬 하나에는 10~15kg의 숯이 들어갔다.¹³

나무가 베어진 산판 자리에는 화전민들이 들어왔다. 특히 지금 광덕산에 잣나무 심은 곳과 여우고개 덕재의 역새밭은 화전민 천지였다. 화전민들은 봄(3~4월)에 잡초를 깎고, 하지 전(5~6월)에 불을 놓는다. 1천 평 정도를 며칠 풀을 깎고 흙만 나오게 갈퀴로 긁고 나서 위에서부터 빙둘러서 불을 붙이고 아래 쪽에서 불을 붙여 맞불이 되게 했다. 바람에 불티가 날려 가끔 뒷불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산불 많이 나곤 했다. 재를 비료로 하므로 농사가 잘 되었는데 콩, 팥, 옥수수, 감자 등의 잡곡이나 무, 중다리, 당근, 양배추, 상추 등의 채소를 심었다. 수확된 잡곡이나 채소는 쌀, 생선 등과 맞교환하기도 했다.

주민 중에는 고물을 수집하여 파는 사람도 있었다. 4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야전삽으로 호구덩이(참호) 흔적이 있는 곳을 파서 탄피, 실탄 무더기를 찾아다녔다. 불발탄도 많아서 사고가 나기도 했으므로 지뢰 탐지기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뢰탐지기는 중고가 15만 원, 새 것이 30만 원이었다. 영국 포알의 경우 1kg에 800원을 받았는데 당시 쌀 한 가마 값이었다. 어떤 때는 한 판을 켈 때도 있었다.¹⁴

13 송영현(남, 75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4. 1.

14 박호규(남, 73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3. 11.

4.3. 이동면의 특산물 막걸리와 갈비

이동면 하면 떠오르는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도 이동면의 군문화가 만들어진 특산품이었다. 이동막걸리는 도평삼거리에 있는 막걸리공장(한일양조장)에서 탄생하였다. 고 하유천 회장이 1957년 이 양조장을 창업했는데, 산과 물밖에 없는 이 고장의 특산물로는 제격이었다. 처음에 군납을 주로 하였으나 군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게 되었고, 한동안 도평리를 먹여 살리던 효자 특산품이었다. 함을순 할머니는 한일양조장에서 1984년~2002년까지 18년간 일을 했다. 월급은 12만원에서 시작해서 113만원까지 받았고, 급하면 가불도 가능했다. 새벽 4:30~50분쯤 나가서 6~7시쯤 퇴근했다. 직원은 24명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많았다.¹⁵

이동갈비 역시 이동면 군문화의 산물이다. 이동면의 축산농가에서는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 소고기를 대량 납품했는데, 그중에 비싼 부위인 소갈비만은 납품이 되지 않아 그대로 남았다. 이를 고민하던 업자들은 쪼갠 갈빗대에 붙은 살에 갈비 부위의 살을 굽기 좋게 포를 떠서 꼬치로 길게 이어 붙였다. 이렇게 개발된 갈비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군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 이동면의 명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등산객들이 포천의 백운산과 산정호수 등을 방문하면서 이동갈비가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현재 이동면에는 이동갈비라는 이름을 달고 100여 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이다.

15 함을순(여, 76세, 도평1리) 조사일 2021. 4. 30.



이동막걸리공장(한일양조장)



이동갈비골목

4.4. 이동면 아이들의 전성시대

1970년대 이동초등학교에는 1500여 명의 학생이 다녔는데, 현재는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도평초등학교 역시 600여 명의 학생이 다녔을 정도였다. 이때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지르는 즐거운 비명이 이동면 곳곳에서 메아리 쳤다.

당시 아이들이 즐겨하던 일반 놀이는 제기차기, 말뚝박기, 자치기, 방석치기, 고무줄, 비석치기, 숨바꼭질,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짐뽕, 가위산 등이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의 놀이 중에는 토박이 어른들이 소시적에 하던 전통놀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변화가 생긴 것도 있었다. 정월 보름 논두렁을 태우던 쥐불놀이는 균용강통에 불을 넣고 돌리는 놀이로 바뀌었고, 짚을 썬 막대기를 태우며 소원을 빌던 달집태우기는 페타이어에 짚을 수북히 쌓아 놓고 태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울과 논에서 썰매(주로 외밭 썰매)를 타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당시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군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딱지치기도 달력, 신문지로 만든 것이었다가 가게에서 파는 동그란 딱지를 사서 놀게 되었다.

여름에는 오양골, 도마치, 백운계곡으로 천렵을 갔다. 이곳은 학교에서 매

해 가는 소풍 코스이기도 했다. 천렵을 가는 도중 옥수수, 감자 등을 서리해서 가져갔다. 물고기는 어항을 놓거나 맨손으로 잡았는데 버들치, 피라미, 돌메기가 주로 잡혔고, 가재도 많았다.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는 하곳길 아이들이 몰리던 곳이었다. 도평초등학교 앞에는 할머니가게라고 부르는 문방구 겸 구멍가게가 있었다. 학용품, 장남감, 과자 외에 불량식품도 많이 팔았다. ‘달고나’는 따로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이 있었다.¹⁶

5. 관광문화마을로 변모하는 이동면

5.1. 유원지가 된 백운계곡과 약사계곡

이동면은 군주둔지로서의 특수가 시들해져 갈 무렵 천혜의 자연환경을 무기로 삼아 유원지의 고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모색을 하게 된다. 이에 1980년대 말 백운계곡이 이동주조(한일양조장) 고(故) 하유천 회장의 노력에 힘입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민박집, 식당, 매점 등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상가가 들어서기 전 백운계곡은 흥룡사 앞에 두 집, 계곡 주변으로 군데군데 10여 집들이 흩어져 있었고, 장사를 하던 집은 몇 곳에 불과했다. 당시 도평4리 이장이었던 추월성 씨는 백운계곡을 따라 하천부지를 50구역으로 나누어 상가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입주상인들은 도평리 주민들이 많았지만 연곡리 등 다른 이동면 주민들도 포함되었고, 입주 구역은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결정하였다. 초창기 입주한 상인들은 불법으로 상점을 개축하고, 계곡에 평상, 방갈로와 같은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려고 하였으므로 군청에서 단속을 나온 사람들

16 추봉순(여, 62세, 도평2리 거주) 조사일 2021. 5. 7. / 장보영(남, 66세, 도평4리 이장) 조사일 2021. 5. 14.

과 숨바꼭질하듯 철거와 개축을 반복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초창기 입주 상인들은 10여 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상가를 사서 들어온 외지 사람들이다. 백운계곡의 상인들은 백운계곡 상인조합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3개 상점주인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백운계곡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었던 시절은 1990년대까지였는데, 유흥객들의 장구소리와 노랫소리로 계곡 전체가 떠들썩하였다. IMF 이후 경기가 이전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여름 한철 장사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포천시에서 백운계곡의 방갈로,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상인들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반면 관광객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는 상인들의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라 판단된다.

백운계곡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약사계곡도 조명을 받게 된다. 약사계곡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만나무집과 같은 식당 몇 채가 늘러오는 유흥객들에게 닭백숙, 보신탕 등을 파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0년대부터는 백운계곡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민박, 모텔, 식당 대신 캠핑장이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부 무허가 시설이었고, 약사계곡에서 관광숙박시설 허가를 취득한 캠핑장은 2016년에 준공된 주노 캠핑장이 처음이었다. 이후 약사계곡의 캠핑장은 시설 경쟁을 하듯이 대형화되며 최신식 시설을 갖춘 글램핑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최근에 오픈한 휴랜드는 2만 평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 약사계곡의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토박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며, 주로 외지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¹⁷

5.2. 지역 축제로 활성화를 모색하는 이동면

도평리에서는 2000년대 이전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나 행사는 없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정초에 척사대회와 추석에 노래자랑대회

17 추종열(여, 76세, 도평3리) 조사일 2021. 5. 6.

를 개최할 뿐이었다. 노래자랑대회는 30년 정도 이어진 행사로 도평리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행사였다. 처음에는 수복탑이 있는 곳에서 하다가 도리돌문화 교류센터가 생기자 센터 앞 공터로 장소를 옮겼다. 노래자랑대회는 무대를 가설하고, 노래의 반주를 맡기기 위해 부대에서 밴드를 부르거나, 마을에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진행되었다. 대회에 입상자들에게는 상품도 주었는데, 초창기 상품은 시계, 술, 양은냄비 등이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이동면 전체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대회가 커지면서 이동면장과 포천시위원장들도 방문하게 되었고, 상품도 세탁기, TV 등을 찬조받게 되었다. 심사위원은 마을어른들이 맡는데, 노래 실력보다는 관객들의 호응이 좋은 사람을 선정하다가 나중에는 이동면의 각 마을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도리돌한방마을 안내판. 지금은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던 중에 도평리의 약사마을에서 시의 지원을 받는 마을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동반하여 한방김치축제를 2년간 개최하였고, 한방김치공장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¹⁸

18 오중욱(남, 68세, 도평3리) 조사일 2021. 2. 10.

하지만 지원금의 사용과 지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생겨 갈등을 겪다가 운영주체가 도평리 부녀회로 넘어갔고, 7~8년 정도 지속되다가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방김치축제는 축제가 마을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후 도평리의 각 마을들은 관광객을 염두에 둔 지역 축제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게 된다. 이러한 축제의 가장 두드러진 방향성은 도평리의 자연환경이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도평리에서는 그간 백운산 산채 축제, 백운계곡 물바람 축제, 막걸리 한방김치 축제, 주안상 축제, 막걸리페스타 등 다양한 축제들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되는 축제로는 여름에 거행되는 이동갈비바베큐 축제와 겨울에 거행하는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만 남아 있다.



도평리 지역 축제 포스터



동장군축제 행사장

동장군 축제는 (사)도리돌지역활성화센터의 동장군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축제이다. 포천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도평리의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흑자를 내지 않는 조건이라고 한다. 제17회를 맞이했던 2020년의 행사는 1월 4일~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행사 장소는 도리돌마을에 있는 백운천변이었다. 원래 축제가 거행되었던 장소는 도평2리의 백운계곡이었으나 흥룡사와 외부에서 온 펜션, 캠핑장 운영자가 담합하여 축제 장소를 독점하려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 장소를 부

특이 윽기게 된 것이다.

이동갈비바베큐 축제는 농업회사법인 도리돌마을에서 주최한다. 2019년 제 6회 행사는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동갈비바베큐 축제는 갈비집이 아니라 포천수북 공원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거행된다. 이용자들이 먹고 싶은 등갈비, 삼겹살 등 각종 고기를 선택하고 체험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주최측에서는 석쇠 및 일체의 장비를 대여해준다. 매점에서 햇반, 김치 등의 구입도 가능하지만 집에서 준비해오는 것도 가능하다. 축제기간 중 판매되는 갈비와 삼겹살 등은 가격 대비 품질과 양이 만족할 만하여 별도로 구입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¹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수단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원지 마을로서의 이동면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광문화 또한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이동면의 변화 현상이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도평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의 진행과정은 이동면 전 지역에서 활용하거나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지역의 문화관계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마무리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이후 이동면이 겪은 극심한 사회적, 문화적 변동은 이 지역의 문화를 조사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광복 후 북한 치하에서 전통 민속이 단절되었다가 6·25동란 중에는 38선 접경 지역인 관개로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주민들은 소개되었다. 휴전 후 수북지구로서 마을이 재건되지만 군주둔지역의 특수로 전국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팔도의 문화가 뒤섞였다. 또한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19 김광천(남, 42세, 도평4리, 농업회사법인 도리돌마을 사무장) 조사일 2020. 12. 7.

유원지 마을로 변하며 식당, 모텔, 캠핑장, 글램핑장 투성이의 마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운영자는 외지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면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단한 변화 과정 속에서 이동면이 재건되고 발전한 것임은 분명하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역 문화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혼종된 문화현상 중에서 이동면의 지속적인 문화 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이동면은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며 다양한 지역 축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 사회적 변동을 거치는 동안 이동면에 누적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면에는 조선시대부터 거주하던 세거성씨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문중 문화에서 이동면의 고유한 전통을 찾을 수 있다. 토박이 어른들이 광복 이후 겪은 북한 치하의 경험이나 수복 후 마을 재건의 모습도 이동면의 현대사적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 요소이다. 또한 군주둔지가 된 이후 팔도의 문화가 뒤섞이는 양상이나 백운계곡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광문화 역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이동면의 특징적 문화현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면이 지닌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이동면의 정체성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줄 수 있는 이동면의 문화자원들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patterns in Pocheon-si Idong-myeon, the restoration district

Kim, Junki(KyungHee University)

Pocheon-si Idong-myeon, a region north of the 38th parallel, came under the rule of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villages were devastated as battlefields, and residents had to spend time of confusion and turbulence. After the ceasefire, the village was rebuilt as a restoration district, but as people flocked from all over the country around the military base, the culture of all over the country was mixed. When Baegun Valley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ourist destination in the 1980s, villages in Idong-myeon turned into amusement parks, and became villages full of restaurants, motels, camping sites, and glamping sites. In this process, the tradition of Idong-myeon's society and culture disappears, and an unidentified mixed culture pattern emerges.

Currently, Idong-myeon is an extension of this historical trend. On the surface, it seems to be a rural society that i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region, but if you look at the site, the social and cultural confusion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continues to affect the appearance of the village and the way residents live.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 process of Idong-myeon from the time of liberation to the present, which could be captured through

field surveys, and diagnosed the future of Idong-myeon.

Key words: Pocheon-si Idong-myeon, North Korean military government, restoration district, military base culture, amusement area culture

[참고문헌]

■ 기본자료

『도로고』, 신경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태종, 세종, 성종, 헌종, 고종 등

『호구총수』

■ 단행본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놀이·예술편, 경기도박물관, 2000, 115-118면.

『경기 북부의 신당과 제당』, 김두진 편저, 국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2, 275-300면.

『경기도의 마을 신앙과 제당』, 전국 문화원 연합회 경기도 지회, 2002, 289-295면.

『경기문화유적지도』, III. 경기북부지역, 경기도 박물관, 2000. 38~39면, 52-53면.

『백운계곡 활성화 및 발전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 2015, 21-26면.

『조선지리지자료(영인본)』, 경기도편, 경기문화재단, 2008, 409-412면.

『포천군지』, 포천 군지 편찬 위원회, 1997, 400-404면.

『포천의 민속』, 포천 문화원, 2010, 65-69면.

『포천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 유적 답사』, 포천 문화원, 2007, 68면.

『포천의 지명유래집(수정증보판)』, 포천문화원, 2006, 450-492면.

■ 기타자료

동강군축제 홈페이지 <http://www.dongjangkun.co.kr/> 검색일 2022. 3. 7.

디지털포천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pocheon.grandculture.net/pocheon/> 검색일 2022. 3. 5.

이동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edm/> 검색일 2022. 3. 5.

■ 제보자

- 김광천(남, 42세, 도평4리) 조사일 2020. 12. 7.
김영진(남, 84세, 연곡1리) 조사일 2021. 9. 10.
박호규(남, 73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3. 11.
송영현(남, 75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4. 1.
오중옥(남, 68세, 도평3리) 조사일 2021. 2. 10.
윤경자(여, 65세, 도평4리) 조사일 2021. 9. 17.
이영창(남, 83세, 도평1리) 조사일 2021. 4. 22.
이원식(남, 80세, 장암4리) 조사일 2021. 3. 5.
장보영(남, 66세, 도평4리) 조사일 2021. 5. 14.
추봉순(여, 62세, 도평2리) 조사일 2021. 5. 7.
추종열(여, 76세, 도평3리) 조사일 2021. 5. 6.
함을순(여, 76세, 도평1리) 조사일 2021. 4. 30.